

동아제약, 바이오시밀러 송도공장 신축

동아제약(대표 김원배)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에 바이오시밀러(BioSimilar) 공장 신축을 위해 8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9월26일 공시했다.

투자액은 자기자본의 10.92%이며, 종료일은 2013년 11월30일이다.

동아제약은 2011년 9월14일 일본 Meiji Seika Pharma와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관한 포괄적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.

<화학저널 2012/09/26>